

February 08 하나님으로 숨 고르기

• 마가복음 2:23-28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원복을 향해 내 삶을 조정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합니다(롬 12:1-2). 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복 주시길 원하시며, 주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옳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히 11:6).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 정신은 금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의 깊은 뜻을 계명 안에 가두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보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그 기쁨 안에는 분명 인간을 향한 복이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은 ‘기억’하여 쉬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구별하고 의미를 곱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빛이 비치고 질서가 생기며 풍요와 화목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에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멈추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그 안에 복이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날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을 새번역으로 읽어 보면, “나 주가 옛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이 공급될 때 우리는 생령으로 살게 됩니다(창 2:7). 인생의 숨을 고르고, 조용히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안식일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합니까?

- ❶ 세상으로 가빠진 숨을 멈추고, 하나님으로 숨을 고르고 있습니까?
- ❷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가꾸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합니까?